

#### 4. 한국품종 Background 의 응성불임계통을 이용한 수도 Hybrid 육성에 관한 연구

(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, 서울대학교 농과대학)

서학수,\* 허문희, 이창은

우리나라 품종을 Background로 한 수도의 응성불임계통들에 임성회복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품종 또는 계통들을 교잡한 9개 Hybrid의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한 바 수량이 높았던 조합은 계통 201A/계통 234, 통일A/수원 294, HR1619A/수원 294로서 각각 정소로 939, 927 및 900kg/10a 였으며 각각의 우수친에 비해서 36%, 17% 및 10%의 증수(Heterobeltiosis)를 보였고 표준품종인 밀양 46에 비해서는 각각 19%, 17% 및 14%의 증수(Standard Heterosis)를 보였다. Hybrid의 수량구성요소중 이삭당 영화수의 Heterosis가 현저하였고 주당이삭수, 립중 및 임실율은 양친과 비슷하였다.

Hybrid들의 Amylose 함량 단백질 함량은 양친과 비슷하였고 통일 A/밀양 46 과 HR 1619 A/ 수원 294 의 ADV는 양친보다 낮았으나 그 외 조합의 ADV도 양친과 비슷하였다.

Hybrid들의 흰빛잎마름병 저항성은 대부분 저항선친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.

#### 5. 수도 Hybrid 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

(영남대학교, 농축산대학) 서학수,\* 박태석, 조영찬

몇가지 응성불임계통들의 개화특성과 자연교잡율을 조사한 결과 단

위 시간당 개영수는 자연교잡율에 영향이 적었고, 개영 각도가 크고 개영지속기간이 길며 주두 노출이 양호할수록 자연교잡율이 높았다.

화분친과 웅성불임계통과의 거리가 0~90 cm 범위 내에서는 재식 거리에 따른 자연교잡정도의 차이가 없었다. 자연교잡율과 자연교잡종자 생산량은 웅성불임 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V 20 A, Z 97A HR 1619 A, 수원 310 A, 수원 296 A 및 수원 304 A 등 CMS 의 자연교잡율은 각각 18.7 %, 18 %, 11.3 %, 9.4 %, 8.6 % 및 2.0 %였고, GMS인 수원 294ms, 수원 296ms 및 밀양 54ms는 24.8 %, 11.4 % 및 7.2 %였다. CMS인 V 20 A, HR 1619 A, Z 97 A 및 수원 296 A 의 자연교잡종자 생산량은 각각 122, 120, 111 및 52 kg/10a 였고 GMS인 수원 294ms 와 밀양 54ms 는 각각 74, 24.6 kg/10a 였다.

## 6. 水稻 機械移秧 育苗日數에 따른 品種別 出穗 反應에 關한 研究

作物試驗場：尹用大<sup>\*</sup>，郭龍鎬，梁元河，朴錫洪，朴來敬

機械移秧 擴大普及을 위한 品種 出穗生態에 따른 適正 育苗日數 및 2毛作 栽培時 適應品種을 究明코자 多收系인 太白벼 外 8品種과 一般系인 小白벼 外 12品種을 供試하였으며 育苗日數는 25日苗, 35日苗로 移秧期를 6月10日, 6月20日로 하여 1983~1984年 2個年間 實施한 試驗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.

1. 移秧時 苗齡은 多收系品種의 25日苗보다 35日苗에서 1葉이 增加되었으나 一般系品種은 0.7葉의 增加로 育苗日數 延長에 의한 苗齡進展은 多收系에서 效果가 컸다.